

예향의 봄, 예술로 '행복 충전'

광주예술의전당 상반기 기획공연 라인업 공개



바이올리니스트 케빈 주.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뮤지컬 '킹키부츠'. <CJ ENM 제공>



클래식 해설가 안인모.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뮤지컬의 신나는 에너지부터 클래식의 깊은 울림, 낮 시간의 사색을 이끄는 마티네 콘서트... 광주예술의전당은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지역민들에게 다채로운 예술의 즐거움을 전해왔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최근 올해 상반기 기획공연 일정을 공개했다.

개관 35주년을 맞은 올해는 기획공연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그동안 '포시즌'과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시리즈를 각각 '그랜드 스테이지'와 '영 스테이지'로 개편하고, 대극장 중심 공연과 소극장 공연의 성격을 구분해 구성했다. 공연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객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랜드·영 스테이지로 방식 개편
대·소극장 성격 구분해 공연 구성
4월 4~5일 뮤지컬 '킹키부츠'
5월 케빈 주 '슈퍼 클래식' 등 풍성



싱어송라이터 정효빈.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대극장에서 펼쳐질 '그랜드 스테이지'다. 이름에 걸맞게 규모와 완성도를 갖춘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그 서막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킹키부츠'가 연다. 오는 4월 4~5일 이들 동안 네 차례 공연되는 이 작품은 폐업 위기에 놓인 구두 공장을 되살리기 위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인물이 힘을 모으는 과정을 그린다.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는 연대의 메시지를 음악과 유머로 풀어내 세계 여러 도시에서 꾸준히 공연된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찰리 역의 김호영·이재환·신재범, 롤라 역의 강홍석·백형훈·서경수 등이 출연한다.

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도 협연자로 참여해 다양한 소품곡을 함께 연주하며 무대의 깊이를 더한다.

소극장에서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영 스테이지'가 이어진다. 젊은 음악가와 대중음악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무대다. 3월 20일에는 싱어송라이터 정효빈이 공연을 연

다. 드라마 OST와 음반 활동으로 이름을 알려 온 그는 최근 발표한 '메리골드'를 포함해 자신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줄 예정이다.

5월 22일에는 선우정아와 김수영이 한 무대에 선다.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두 아티스트는 밴드 구성의 라이브 공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서로 다른 감성을 지닌 음악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무대다.

낮 시간 공연으로 마련된 마티네 콘서트 '11시 음악산책'도 이어진다.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해설가 안인모가 올해도 콘서트 가이드로 참여한다. 올해 주제는 '단편선'으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음악과 미술을 함께 소개한다.

3월 31일 공연은 김유정의 소설 '봄봄'을 바탕으로 당시 문학과 예술을 함께 살펴본다. 억압된 시대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력과 희망을 다양한 예술 작품과 연결해 조명하는 자리다. 4월 28일에는 모파상의 '목걸이'를 통해 욕망과 허영이 남긴 흔적을 성찰하고, 프랑스 음악의 정서와 함께 인간의 내면을 탐색한다. 6월 30일 무대에서는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과 북유럽 회화, 그리고 그리그와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통해 사랑과 현실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되짚는다. 각 공연은 해설과 연주를 결합해 작품의 배경과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윤영문 전당장은 "개관 35주년을 맞아 기획공연의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연을 통해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통해 지역 공연 문화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선운사에서 소중한 인연 찾는 '나는 절로'

다음달 28~29일 남녀 20명 참여...5일까지 참가 신청



오는 3월28일부터 1박 2일간 고향 선운사에서 미혼남녀의 뜻깊은 만남을 위한 '나는 절로, 선운사'가 진행된다. 선운사 템플스테이 모습.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제공>

봄은 동백이 아름다운 3월 말, 천년고찰 고향 선운사에서 소중한 인연을 찾는 '나는 절로, 선운사'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다음달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고향 선운사에서 호남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나는 절로, 선운사'를 진행한다. 신청은 다음 달 5일 오후 5시까지 재단 홈페이지(jabinanum.or.kr)에 오른 구글 형식을 통해 받는다. 이번에는 종교에 상관없이 20~30대 호남권 거주자로 대상을 좁혀 행사가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다. 템플스테이와 만남이 어우러진 '나는 절로'는 지난 2년간 전국 미혼남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다음 달 말에는 선운사를 예워싼 도솔산의 빼어난 풍경 아래 남녀 각 10명, 총 20명이 진정한 인연을 찾게 된다.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범복을 입고 가명을 쓰며 자유로운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10분마다 상대를 바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일대일 차담과 특목 튀는 자기소개 등이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즐기며 봄 마중

광주문화재단, 28일 전통문화관 희경루서 토요일상설공연



광산농악보존회의 지난해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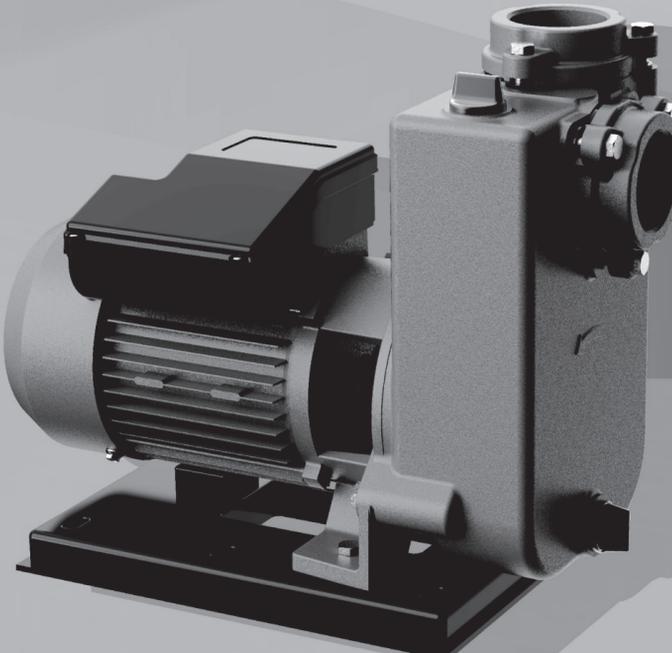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이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이다. 우리조상들은 예로부터 이날에 다양한 전통 행사들을 펼쳐왔다. 또한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었으며 부럼을 깨물어 무병과 무탈을 염원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던 풍습을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은옥)은 전통문화관과 희경루에서 다채로운 정월 대보름행사를 기획했다. 오는 28일 오후 전통문화관과 희경루, 오후 1시에는 토요일상설공연 특별 기획행사 '병

오년 대보름, 붉은 말의 봄마중'이 전통문화관에서 열린다. 병오년을 맞아 말을 연상시키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병오년의 의미를 생각하고 함께 새해의 건강과 무탈을 기원하자는 취지다.

오후 2시 희경루에서는 '비우고, 막고, 채운다'를 주제로 대보름 잔치가 진행된다. 무형유산 보유단체의 길놀이 공연을 비롯해 기능보유자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모두 무료. 광주시민, 내·외국인 관광객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문화관 누리집과 SNS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장혜원 기자 hey1@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